

슬기로운 방학생활 위한 '아무튼 맘콕' 방학프로그램

목포교육청 Wee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15팀 대상

목포교육지원청은 2021학년도 여름방학을 맞아 2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정 15팀을 대상으로 '아무튼 맘콕!'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무튼 맘콕!'은 부모와 자녀가 감정을 소통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에 '콕'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

음이 지친 부모와 자녀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소한 즐거움과 힐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 자녀 관계 개선 프로그램,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특히 프로그램의 첫날인 26일 진행된 부모 자녀 관계개선 프로그램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성격유형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의사소통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를 위해 심리검사(MBTI)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별 대면, 비대면, 원격 화상플랫폼 방식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의 안전과 즐거움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비대면 프로그램의 경우 '맘콕 키트'와 유튜브 영상링크를 제공하여 각 가정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프로그램을 신청한 4학년 이00학생은 "여름방학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아서 답답하고 심심했는데, 가족들과 집에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빨리 참여하고 싶다."며 기대하는 마음을 밝혔다. 목포교육지원청은 관내 학생들의 정서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학생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박정수기자



순천대, 대학-대학원 하나의 학칙으로 통합

최근 급격히 변화된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응 위해



순천대학교는 최근 대학평의회를 거쳐, 대학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하나로 통합한 '순천대학교 대학-대학원 통합학칙'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순천대학교는 1982년 4년제 대학으로 개편 이래, 대학(학부)의 학칙과 대학원 학칙을 별도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급격히 변화된 교육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학사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통합학칙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대학-대학원 통합학칙 제정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등교육법·대학설립운영규정·국립학교 설치령 등 상위법령을 검토하여 통합학칙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통합학칙 검토위원회'에서 8

개월간 11번의 회의를 개최하고 보완·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인 통합학칙안에 대해, 2번의 학내 의견수렴 및 대학평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난 27일 통합학칙을 공포하게 되었다. 순천대학교 '대학-대학원 통합학칙'은 총 6장, 1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고, ▲융합학과 설치 ▲직원 및 조교의 담당 사무 근거 ▲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또한, 총장 직속기구에 관한 조문을 통합 정비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 에 따라 정보전산원을 교육기본시설로 포함하였으며, 학생 징계권자를 단과대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청암대 웹툰콘텐츠과, 메타버스 진로특강 실시



청암대학교 웹툰콘텐츠과는 최근 창작1실에서 청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상으로 진로특강과 VR웹툰

청암고 3학년 학생 대상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로특강은 청암대와 (주)빌리버((전)코믹스브이)와의 산학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미래시대 웹툰 시장의 이해"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참가한 고등학생들은 "웹툰에 대한 이해와 미래 콘텐츠 시장의 전문적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무안교육청, 내달 6일까지 여름방학 창의융합 캠프



무안교육지원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무안 관내 학생들의 SW 역량과 정보기능의 향상을 위해 여름방학 창의융합 캠프를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무안교육지원청 SW교육

관내 학생들의 SW역량·정보기능 향상 위해

체험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방학 창의융합 캠프는 7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4개의 프로그램이 각 15시간, 총 10일(60시간)에 걸쳐서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은 메이커 캠프, 하드웨어 코딩과 드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무안군의 지

원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기자재를 확보하여 관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 교육장은 "본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SW소양을 갖추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교육청, 안전한 여름방학 위한 교외 생활교육 실시

여름방학 중 지역사회 연합 교외 생활교육

영암교육지원청은 최근 영암군 삼호읍을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주 2회 이상 지역사회와 함께 교외 생활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 생활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교외 생활교육 기간 동안 다중이용시설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음식 섭취하지 않기, 실내 주기적 환기 및 소독, 개인위생 관리 등 생

활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연합 학생생활지원단은 관내 영암읍과 삼호읍, 학산면 지역에 있는 PC방, 동전노래방, 카페, 당구장 등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용수칙 안내문과 마스크를 배부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당부했다. 독천버스터미널 인근 다중이용시설 PC방 점검에 함께 참여한 영암남주중 학생회장 정00 학생은

"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꾸준히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삼호읍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함께 참여한 삼호서중 학생부장 이00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삼호읍 한마음회관과 인근 다중이용시설에서 매주 교외 생활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